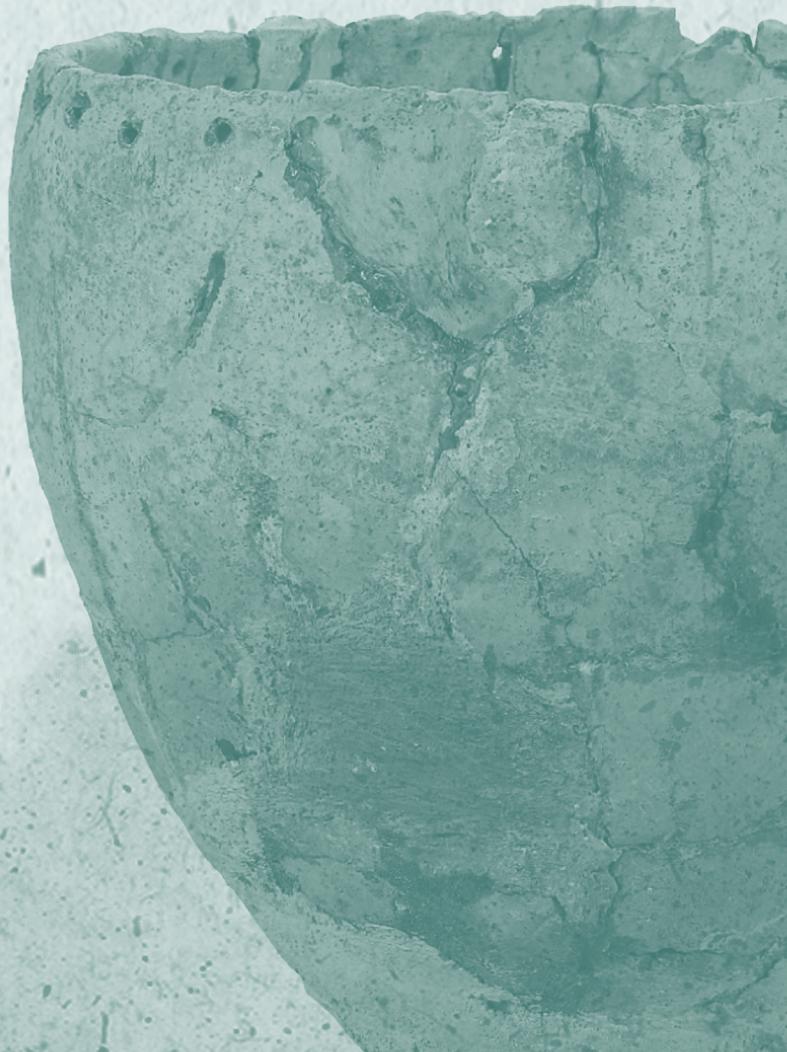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

황재훈 (서울대학교)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

황재훈(서울대학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제 문제
 - 1. 공렬토기 초현에 대한 가설의 재검토
 - 2. 대안: 공렬토기의 등장과 전개
- III. 남은 문제들
 - 1. 역삼동식 토기의 시간적 위치
 - 2. 경기와 강원지역의 공렬토기, 혼암리식 토기
 - 3. 경기 서북부지역의 이중구연토기
- IV. 중부지역 무문토기 사회의 전개
 - 1. 전기 전반
 - 2. 전기 중반
 - 3. 전기 후반
 - 4. 후기
- V. 맺음말

I. 머리말

90년대 이래 무문토기시대 연구는 문화유형 설정과 편년 수립에 경주되어 왔다. 수많은 고고 자료의 연결성을 찾아내고 시간적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된 덕분이다. 그러나 그간의 현상학적 연구가 문화변동 양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토기나 주거지와 같은 문화 요소의 미시적 변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활발하지만 무문토기 사회의 거시적 변화상을 다루는 연구는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전개와 사회상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그



다지 많지 않았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제시된 가설이 반복적으로 인용될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볼 수 있다.

무문토기시대 전기 각 문화유형의 출현 및 관계, 전개과정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공렬토기의 등장과 확산에 대한 이해에 있다. 그러나 현재 공렬토기에 대한 연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여 년간 가락동과 미사리유형의 유구·유물 분석을 비롯한 편년 연구는 매우 활성화되었던 반면 공렬토기나 역삼동유형에 관한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현재의 연구 경향이 형식학적 방법과 교차 편년에 치중된 탓도 있다. 미사리, 가락동유형과 달리 역삼동유형은 기원지가 명확치 않으며 주거 구조나 토기 문양에서 별다른 형식학적 변화상을 간취하기도 어려운바 현재의 방법론으로는 접근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공렬토기의 수량과 밀도, 전 남한적 분포상, 고고학적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렬토기 연구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무문토기 사회의 문화변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발표는 그간 정면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등장과 확산, 문화변동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논하기 전, 우선 공렬토기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렬토기의 기원과 등장시점, 역삼동식 토기의 시간성, 혼암리식 토기의 형성, 이중구연토기의 계보와 같은 제 가설의 논리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현재의 자료와 고고학적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아울러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과 유구·유물 양상에 기초, 취락 입지와 주거 분포 정형, 문화유형 간 공간적 변화상을 종합한 편년 틀을 마련하여 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전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II.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제 문제

현 무문토기시대 연구의 쟁점 중 하나는 공렬토기에 대한 주제이다. 역삼동 유적의 발굴 이래 축적된 반세기 동안의 조사 및 연구 성과는 가히 괄목할만하며, 그 결과 공렬토기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해상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한지역 공렬토기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방법론인 유형론과 계통론, 교차편년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향후 많은 논의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공렬토기의 계통, 초현, 확산에 대한 제 문제들을 일각에 해소하기는 요원할 듯하다. 이는 단순히 무문토기시대 서로 다른 토기(문양)의 선후관계 및 편년 체계를 넘어 각 문화유형 간 계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고 또한 공렬토기와 관련된 무문토기시대의 복잡한 계 양상과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도 필자의 능력 상 무리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본고를 통해 기존 공렬토기에 대한 제 가설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해보고 현재의 고고학적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함으로써, 공렬토기문화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1. 공렬토기 초현에 대한 가설의 재검토

공렬토기에 대한 논의는 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후기까지 지속되는 ‘하한’ 외에는 합의된 바가

거의 없을 만큼 견해차가 크다. 특히 공렬이라는 문양 요소의 기원과 초현, 출현 배경에 대한 연구자 간 이해는 이견의 폭을 좁히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동떨어진 인식 구조를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시각차는 무문토기시대 성립과 전개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는바 첨예한 의견 대립이 결코 무리는 아니다.

공렬토기의 등장에 대한 견해는 세부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양분할 수 있다. 첫째, 신석기시대 후/말기 토기에서 구하는 자생설 둘째, 무문토기시대 개시 이래 북으로부터 기원했을 것으로 보는 외래설이 그것이다. 그리고 외래설은 다시 두만강유역을 위시한 동북기원설과 청천강-압록강유역~요동지역의 서북기원설로 구분된다. 이들 가설은 고고학적 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나름의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고고 자료들과 괴리된 부분들 또한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학설들이 기초하고 있는 논리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자생설

남한지역 신석기 후말기 즐문토기에는 무각목돌대문이나 이중구연과 같은 이전 시기와는 상이한 문양 요소가 새로이 확인된다. 동시에 공렬문도 등장하는데 즐문이나 격자문과 함께 시문되거나 즐문토기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 공렬문은 세부적인 시문기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천 용유도, 삼목도, 오이도, 부안 계화도, 군산 노래섬, 여수 월호도와 같은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한 자돌 혹은 점열과 같은 기법인데 반해, 춘천 내평과 서산 대로리 출토품은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한 돌유문이다. 공렬토기의 기원을 전자에서 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관점(김권중 2010)이 존재하지만 매우 큰 탄소연대 차를 보이며 투공 수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바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송만영 2013). 무산 호곡이나 회령 오동과 같이 동일 유적 내 즐문공렬에서 공렬토기로 이어지는 북한지역의 양상과 달리 남한에서는 그러한 연속성이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양자를 연결하기 어려운 정황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소극적이거나 자생설의 입장에 서있는 연구자들(김장석 2008; 배진성 2010; 허의행 2014; 천선행 2015) 또한 이상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한지역 즐문공렬토기와 공렬토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연관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신석기 말기 즐문공렬토기는 이전의 문양 요소에서 공렬문의 기원을 구하기 어려운바 이 시기 중국 요동과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이 존재했고, 특히 경기 서해안지역과의 접촉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이후 공렬토기문화의 등장배경에 있어 하나의 간접적인 단서는 될 수 있다.

한편 내평과 대로리 출토품은 공렬토기의 등장과 관련하여 전자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다. 물론 두 유적의 출토 정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안재호 2006)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자들은 토기 자체의 태토나 두께에 근거하여 신석기 최말기 혹은 무문토기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공렬토기로 인정하고 있다(박순발 1993; 배진성 2003; 천선행 2007; 김장석 2008; 최종모 2010). 특히 즐문 및 즐문무각목돌대문과 공반된 내평 출토품은 호곡 1호 주거지 발형토기와의 관련성이 지적되면서 남한지역 공렬토기의 초현으로 여겨져 왔다(박순발 1993; 조유전 1994; 배진성 2003). 그러나 강인욱(2007, 2011)에 의해 호곡 1기의 시간적 위치를 비롯하여 송평동식토기와 남한지역 공렬토기의 상이성을 토대로 동북기원설에 대한 부정론이 제기되었다. 최근 천선행(2015) 또한 기존 북한지역 기원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평 공렬토기의 자생론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기원론으로 이어졌는데, 사실 양자는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며 자료적 성격상 동시에 검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어 아래에서는 공렬토기 외래기원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외래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렬토기 동북기원설은 이백규(1974)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고 후속된 여러 연구(김원용 1986; 이청규 1988; 안재호 1991; 박순발 1993; 조유전 1994)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설화 되었다. 하지만 이후 大貫靜夫(1996)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데 두만강을 비롯한 동해 북부의 것은 관통된 공렬토기로 남한지역의 돌유문과는 상이하며, 세죽리 3호 주거지 출토 토기와 방내리의 혼암리식 토기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압록강~청천강유역과의 관련성을 피력하였다. 그의 논문이 가락동식 토기를 비롯한 제 무문토기 연구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끌었고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의 공렬토기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그 기원지가 동북한지역인가 서북지역인가의 양단론으로 치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강인욱(2007, 2011)은 송평동 패총의 토기는 돌대문과 점열문이 결합된 형식이며 동북한에서는 남한지역의 순수돌류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만강 유역의 공렬토기는 오히려 원산만이나 압록강 중상류로부터 유입된 문양 요소라는 점에서 동북한기원설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무산 호곡이나 회령 오동의 토기가 남한 또는 강원 영동지역 공렬토기의 기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배진성 2003, 2015; 박영구 2015) 압록강과 청천강유역의 공렬토기 또한 그러하다(이형원 2014).

한편 송만영(2013)의 최근 연구에서는 공렬토기 기원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하였지만 외부로부터 파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견해들과 공통된다. 그러나 남한지역 공렬토기의 등장 시점을 미사리식 토기와 가락동식 토기에 비해 한 단계 늦추어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래설이나 자생설과는 다소 차별적인 입장을 보인다.

최근의 문양론적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파급이나 확산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공렬토기의 등장과 전개를 설명하였던 기존의 외래기원설과는 달리 중국 요동-서북한 지역의 토기 문양 요소로부터의 간접적인 영향에 주목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남한 내 변이에 의한 자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 연구의 계통론적 시각을 감안한다면 외래설의 범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여하튼 공렬토기는 신암리 I 기나 쌍타자 Ⅲ기의 토기에서 관찰되는 문양 요소인 원형첨부분이나 자돌문과 같은 문양 요소에서 변이되었거나(안재호·천선행 2004; 안재호 2010), 횡대구획문이나 이중구연거치점열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현식 2008). 따라서 순수공렬토기의 초원은 자생설이나 기존 외래설에 비해 몇 단계 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은 본질론적 유형론과 계통론적 시각에 따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명확한 토기/주거 조합을 이루는 미사리유형이나 가락동유형의 경우 서북이든 동북이든 간에 그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삼동유형의 본질적 요소인 공렬토기와 관산리식 주거지의 조합은 요동지역을 비롯한 북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생설과 외래설의 논리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역삼동유형의 ‘전형’은 전기 중후반 중부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공렬토기, 구상각목토기, 직립구연호, 토광식 노, 주공과 같은 역삼동유형의 문화 요소가 이른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의 편차는 완성된 조합으로 등장하는가 아니면 완성되어 가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2. 대안 : 공렬토기의 등장과 전개

자생설과 외래설 모두 남한지역 공렬토기의 초현과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데 있어 나름대로의 논리적 설명 틀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재의 고고 자료와 양상 모두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자채발생설은 신석기 최말기 즐문공렬토기와의 시간적이고 기술적인 단절성 극복이라는 난제와 함께 주거 및 토기, 석기와 같은 문화 요소의 정립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외래설의 경우 구연 형태나 기형, 세부 문양 요소에 있어서 남한지역의 공렬토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서북, 동북지역 모두 자료적 결합과 한계가 존재한다. 더구나 중국이나 서북한지역의 문양 요소로부터의 퇴화나 파생에 의한 공렬토기의 발생은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그 과정 또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현재 많은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기원한 무문토기 문화유형을 설정하여 그 변화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남한지역 내 등장과 변화는 수많은 요인들이 상호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일어났을 것이며 공렬토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기원지를 찾는 작업¹⁾이 고고학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원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지목된 기원지와의 물질문화적인 간극을 인정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하물며 지목할 수 있는 기원지조차 명확치 않은 공렬토기는 그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설사 수많은 자료가 쌓인다 해도 이를 메울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는 자료의 문제가 아닌 설명의 문제일 수 있다.

두 의견 모두 취약점과 한계점 등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비론적인 입장만을 견지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현재의 고고 자료에 가장 적합한 틀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시각일 것이다.

우선 신석기 말기 혹은 무문토기시대 이른 시기 공렬문의 존재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며 대부분의 연구자는 중국 동북이나 북한지역의 문양 요소가 남한 중부지역으로 파급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이른 시기의 공렬문이 전기의 역삼동식 토기와 연속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술하였듯 신석기 말기 공렬즐문토기는 투공수법과 기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탄소연대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양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남한지역 무문토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즐문토기와 공렬토기의 공반 현황과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즐문과 공렬토기의 공반상은 여느 연구 논문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편인데 자료적 한계도 있겠지만 아마도 다소 부정적이거나 해석에 유보하는 연구 시각을 반영하는 듯하다. 물론 충적대지에 입지한 취락 중 신석기시대 유구가 공존하는 유적에서는 후퇴적에 의해 즐문토기나 선대 유물이 후대 유구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신석기시대 유구가 부재한 경우라면 무작정 양자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 70년대 이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더구나 전량 보고도 되지 않는 영성한 복한의 자료에 기초하여 특정 무문토기의 기원지를 추적하는 연구가 남한지역 무문토기 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강인욱(2011)의 지적처럼 복한의 특정 지역이나 유적 하나가 남한에서 발견되는 특정 토기의 기원지로 부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제주도의 혼암리식 토기와 역삼동식 토기, 송국리형 주거지, 지식묘 등은 복한의 토기보다 수량이나 밀도가 훨씬 많아 자료적 해상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남한 어느 지역이나 유적에서 기원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설명 정확한 기원지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발견이 제주도 무문토기 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남한의 돌대문토기와 중국-북한지역의 그것은 기형 및 세부 속성을 비롯하여 공반토기나 유물에서도 적잖은 상이성이 관찰된다. 이는 남한 돌대문토기의 기원이 어느 특정 유적이나 지역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며 이는 가락동식 토기나 공렬토기 또한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표 1>은 무문토기시대 주거지에서 즐문토기가 공반된 사례인데 동일 유적 내 신석기 주거지와 노지가 공존하는 일부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의 유적에서는 양자가 공반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강원지역 또한 즐문토기가 공반된 30여 건의 사례가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일 유적 내 신석기 유구가 공존하고 있어 경기지역과는 차별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각목돌대문과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춘천 중도나 천천리 121-6번지 유적은 구리 교문동, 하남 미사리, 가평 연하리와 유사한 양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 무문토기 사회는 불가피하게 기존 신석기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왔을 것이며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는 무문토기시대 주거지에서 반출되는 환저무문토기나 즐문토기 외에도 타제석부나 타제어망추와 같은 석기 유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자의 교류는 비단 내륙의 충적지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신석기 말기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 서부와 서해안지역의 유구 성격이나 늦은 하한을 염두에 둔다면, 무문토기와 즐문

<표 1> 중서부지역 즐문토기 공반 무문토기시대 주거지 일람: 토기 문양은 각각 A 돌대, B 이중구연, C 음각선, D구순각목, E 공렬로 표기하였다. 비교에 명기된 '신석기'는 동일 유적, 지점 내 주거지나 수혈, 야외노지, 적석 등의 신석기시대 유구가 공존하는 사례를 뜻한다.

| 유적 | 유구 | 공반 토기 | 비고 | 유적 | 유구 | 공반 토기 | 비고 |
|---------|--------|---------------------|--------|---------|---------------------|------------------------|-----|
| 연천 삼거리 | 7 | E | 신석기 | 화성 반송리 | 14 | E | |
| | 8 | E | | 용인 봉명리 | 1 | B+C+E, C, D+E, D, E | |
| | 9 | B+C, B+C+E, E | | | | 2 | |
| 파주 당동리 | 7-2 | | 신석기 | 용인 대덕골 | 3 | E | |
| 파주 교하리 | 2 | | | | 4 | D+E | |
| 강화 장정리 | 3-6 | E | | | 5 | | |
| | 4-1 | B+C | | 평택 소사동 | 라15 | C+D, D+E, E | |
| | 4-2 | B+C, B | | | 라43 | C+E | |
| | 4-3 | B+C, B | | | 3 | | |
| 인천 운서동Ⅲ | 2-4 | D/B+C | 신석기 | 광주 역동 | 5 | D+E, E | |
| 김포 마송 | 1 | B+C, B+D+E, D+E, D | | | 10 | D+E, E | |
| 김포 양촌 | 1-B-1 | | | 남양주 호평동 | 1 | D+E | 신석기 |
| | 1-D-14 | B+C | 신석기 | 하남 미사리 | 송A1 | A, C+D+E, C, D+E, D, E | 신석기 |
| | 1-H-4 | E | | | 송A2 | A, B+C, C, D+E, E, D | |
| | 1-K-3 | E | | | 송A3 | C, D+E, E, D | |
| | 3-L-5 | B+C+E, D+E, D | | | 송A4 | B+C, C, D+E, D, E | |
| | 1-J-4 | | | | 송A5 | D+E, D, E | |
| | 1-J-9 | | | | 송A6 | E | |
| 1-J-12 | | 송A8 | | | B+C, C, D+E, E | | |
| 안양 관양동 | 4 | D+E | | 송A9 | X, C+D+E, D+E, D, E | | |
| 화성 천천리 | 5 | D+E, D | | 고11 | A | | |
| 화성 쌍송리 | 6 | C+E, D+E, D, E | | 고15 | A | | |
| | 7 | D+E | | 고18 | | | |
| | 26 | C+E+D, C, D+E, D, E | | 서1 | | 신석기 | |
| 화성 동학산 | 16 | D+E, D | 가평 연하리 | 1 | A, B | | |
| 화성 반송리 | 13 | | | 13 | A, B | | |

2) 춘천 중도, 신매리, 우두동, 천천리, 산천리 일대를 비롯하여 화천 용암리, 거례리, 흥천 외삼포리, 원주 반곡동, 영월 주천리, 정선 아우라지, 속초 조양동 유적에서의 공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토기의 공반 양상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남 미사리를 비롯한 교문동, 연하리, 중도 등의 미사리유형 주거지에서의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와 환저무문토기, 즐문토기와의 공반상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존 양상은 전환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비록 북한의 자료가 영성하지만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제 토기 문양은 이른 시기부터 공존하고 있다. 구룡강 I·세죽리Ⅲ의 이중구연토기, 공귀리·심귀리 I 과 신암리Ⅱ의 돌대문토기는 동시기로 편년되며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공렬토기 또한 토성리 이래 구룡강 제 1문화층·세죽리Ⅲ³⁾에서 발견되는바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와의 시차를 설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한지역 무문토기의 기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지역 토기의 명확한 선후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현 단계에서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가 시차를 두고 남한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는 매우 불충분하다.

남한지역 이른 시기의 공렬토기 또한 돌대문과 이중구연토기에 비해 그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즐문토기가 공반되는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탄소연대의 상한에 있어서도 양자는 뚜렷한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미사리유형의 탄소연대가 이른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공렬토기의 중심연대는 그보다 늦은 시기에 해당하지만 양자의 상한은 공히 3100~3200 BP에 속한다. 공렬토기와 돌대문토기는 북한지역에서의 공존, 남한지역에서 신석기 유물과의 공반 관계, 탄소연대와 같은 고고학적 양상을 종합하건데 남한지역 내 양자의 초현 시점의 차이를 두기는 어려울 듯하다.

전환기 북한지역 무문토기 문화의 남으로의 확산⁴⁾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정착지 또한 강안 충적지뿐만 아니라 내륙 산간 및 해안지역과 같은 다양한 입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중부 각 지역 토기 문화의 정착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경기 서부지역의 경우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렬토기의 정착은 기존 신석기 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황해도 지역 각형토기유형과도 활발한 문화적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토기의 장식이나 문양과 같은 스타일은 서로 다른 집단이나 그룹을 구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Wobst 1977; Wiessner 1983; Longacre 1991; Rice 1987). 아마도 공렬이라는 문양을 유지, 관찰시킨 데에는 중부 내륙의 돌대문이나 이중구연문과는 차별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역삼동식 토기를 제작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석기시대 주민들과 계통적으로 연결된다고 본 천선행(2015)의 견해는 신석기인의 주체적인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의 생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경기 서부지역의 공렬토기의 정착은 신석기 말기 토광식 노지, 타제석부나 타제어망추, 사격자문 등의 문화 요소와 함께 주거 평면 및 내부 구조, 마제석검과 석촉, 석부와 같은 각형토기유형의 물질문화가 복합되면서 진행되었고 점차적으로 이른바 ‘역삼동유형’으로 완성되어 갔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신암리Ⅲ·공귀리Ⅱ, 세죽리Ⅲ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 무문토기시대 전 시기 동안 존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남한지역으로의 확산은 물질문화의 전파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주민 이동도 적잖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주의 원인을 환경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찾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에 의한 미는 요인(push factor)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경지가 한정된 특정 지역에서 인구와 취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농경지는 점차 부족해지게 되면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마을 내·외적 갈등이 증폭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는 주변 취락으로 편입·흡수되기도 했겠지만 일부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을 감행하였을 것이다.



Ⅲ. 남은 문제들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된 무문토기시대 연구는 반세기 넘게 축적된 수많은 고고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단연 편년 수립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편년 작업은 무문토기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편년 연구에 치중된 나머지, 해를 넘기고 있는 묵은 숙제와 함께 새로 쌓이는 과제가 산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 공렬토기의 기원 2) 역삼동식 토기의 편년 3) 혼암리식 토기의 형성 4) 서로 다른 이중구연토기의 계보 5) 기타 다양한 무문토기 및 적색마연토기의 계통과 같은 문제는 연구자 간 상충된 견해를 보이는 주제이다. 현재 이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다.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워 고고학적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지난한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중부지역 공렬토기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역삼동식 토기의 시간적 위치

60년대 이래 공렬토기는 가장 이른 무문토기로 지목되었으며 그 기원을 동북한에서 구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윤무병 1975; 이백규 1977, 1986; 김원용 1986; 임세권 1986; 조유전 1994). 2000년 들어 안재호에 의한 돌대문토기 조기설이 주창되고 중국 요동과 북한지역 토기를 대상으로 한 계보와 교차편년, 형식학적 방법, 유형론과 같은 연구 경향에 따라 공렬토기, 역삼동식 토기, 역삼동유형의 시간적 위치와 계보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해진다.

역삼동식 토기의 상한을 전기 중·후반으로 내려 보게 되는 계기는 송만영(2001)의 연구가 발단이 되었다. 이후 미사리/가락동-혼암리-역삼동식 토기⁵⁾ 순의 중부지역 편년안이 제안되었고(송만영 2010a, 2010b), 얼마지 않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전 남한지역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 문양 논리의 원론적인 한계와 더불어 검증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들 연구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역삼동유형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주로 문양에 의한 형식학적 논리에 의존하는 편년 방법과 계통론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문양 요소의 다양성이 적으며 기원지를 지목하기 어려운 공렬토기보다는, 1) 교차편년이 가능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2) 상대적으로 변이가 풍부한 이중구연이나 돌대문토기가 형식편년에 기반한 시간성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삼동유형을 늦추어 보는 연구 시각은 역삼동식 토기와 관산리식 주거지의 늦은 하한과도 상당부분 관련 된다. 최근 연천과 춘천 일대의 몇몇 유적에서는 이중구연 또는 돌대문토기와 역삼동식 토기 주거지의 중복 사례가 보고되었다.⁶⁾ 문제는 일부 지역 및 유적의 중복 양상을 토대로 토기 문양의 시간적 순서를 단정하며, 더 나아가 전 남한적 양상으로 확대 하는 데 있다. 조기설의 기반이 되었던 미사리 유적의 양상 또한 그러하다. 환저무문토기와 공반된 각종 돌대문, 이중구연토기 주거지가 동일 유적 내 혼암리식, 역삼동식 토기에 선행할 가능성은 두말할 필요 없

5) 중기(본고의 후기) 이후, 역삼동유형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중기 전반에서 후반으로의 이행은 구순각목공렬-단순공렬-무문양 순의 토기 문양의 퇴화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6) 연천 삼거리 9호와 8호, 춘천 우두동 1 32호와 30호, 금산리 A2호와 3호, 현암리 3호와 24·25호, 7호와 37호 주거지 등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다. 그러나 미사리 유적 내 선후관계의 확대 적용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경기-강원지역의 역삼동유형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등장 시점 전후까지도 여전히 존속된다. 또한 북한강유역과 경기 북서부지역은 미사리, 각형토기유형의 중심 분포권으로 역삼동유형의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만약 중부지역 역삼동유형의 문화 요소가 시간을 두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면, 이 같은 중복 양상은 각 문화유형의 상한차가 아닌, 확산이나 점유 시점의 시차를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부 지역과 유적에서 관찰되는 단편적인 선후관계를 전 남한적 차원의 편년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정과 근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삼동식 토기의 늦은 하한으로 인한 편년적 오인은 비단 유구 중복 양상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하한이 늦은 속성을 지닌 토기의 경우 대개 느리게 편년되는 경향을 보인다. 속성/형식배열에 있어 하한이 늦은 변수는 일반적으로 행렬의 우편에 밀려 배치되게 마련인데, 사실 이는 (계단상의) 이상적인 배열을 도출하기 위한 편의적 방편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단순 배열은 하한이 늦은 유물이 출토되는 유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특정 속성이나 유물의 ‘늦은 하한’이나 ‘긴 존속 기간’ 자체가 ‘상한 연대’ 또한 늦음을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한이 늦은 문양 속성인 공렬이나 구순각목문의 상한은 얼마든지 이를 수 있으며, 늦은 시기로만 취급되는 일단경식 석축, 환상석부, 주상편인석부, 편인석착 또한 그 중심연대나 상한은 더 이르게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가락동-혼암리-역삼동식 토기의 시간성(김한식 2005; 김현식 2008; 庄田愼矢 2007; 송만영 2013)은 유적·유구 내 공반관계와 유구 간 중복관계와 같은 고고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각 토기 문양의 지역적 편향성은 시간성을 반영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940 BP (북에서) 강원 지역으로 유입된 공렬토기가 2900 BP 즈음 경기와 충청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송만영(2013)의 최근 가설은 그간 축적된 수많은 탄소연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돌대문, 이 중구연, 공렬토기 등 전기 이른 시기 토기의 탄소연대는 표본 수와 존속기간에서 약간의 편차가 존재할 뿐 상한 시차 없이 3200 BP 이래 전기 대부분의 시기 동안 공존한다(황재훈 2014b; 황재훈·양혜민 2015).

이상의 역삼동식 토기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선험적 인식은 지나치게 본질론적으로 접근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현재와 같은 유형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복수의 토광식 노와 세장방형주거지,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 석검·석촉·석부·석도의 조합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역삼동식 토기는 늦은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역삼동식 토기는 무문토기시대 전기 후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완성’되어 가는 역삼동유형의 연속적 과정에서의 인식인 셈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남북한지역 모두 공렬토기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경기와 강원지역의 공렬토기, 혼암리식 토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렬토기는 중부 전역에서 예외 없이 발견된다. 이 같은 광역적 분포상의 주요인은 역삼동유형의 확산과 공렬토기의 긴 존속 기간에 있다. 그런데 중부 각지에서 출토되는 모든 공렬토기가 동일한 제일성을 갖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원을 거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이는 중부 각 문화유형의 복잡 다양한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전기의 물질문화는 북으로부터의 영향, 지역 간 상호작용과 문화접변, 자체적인 변이, 전파와 확산 같은 수많은 문화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바 이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렬토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경기지역 공렬토기와 강원지역의 그것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학사를 다시 돌아보면, 남한 전역에서 발견되는 공렬토기는 그 기원이나 계보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일성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지역으로부터의 남하나 남한지역 내 재생 여부와 상관없이 공렬토기의 분포상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확산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박영구(2015)는 강원 영동지역 역삼동유형 유적이 한강유역 역삼동유형의 직접적인 확산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송만영(2013)은 강원 영서지역으로 유입된 공렬요소가 경기와 충청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같은 일률적인 확산 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 경기와 강원지역의 공렬토기는 투공기법과 구연단 처리에 있어 편차가 있으며 주저 평면형태나 노, 주혈, 벽구 등의 내부 시설에서도 상이성이 많이 관찰된다. 또 다른 문제는 남한 전역에서 발견되는 공렬토기출토 유적의 탄소연대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도 있다. 경기지역과 강원 지역 모두 3000 BP를 상회하는 이른 측정치가 존재하는바 특정 지점에서 확산되었다고 보기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며, 각 단위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에 지역 간 시차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기 중서부 지역과 강원 영동지역의 공렬토기가 독자적인 과정을 거쳐 등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강원 영서의 북한강과 남한강유역의 공렬토기 또한 서로 다른 전개양상의 산물일 여지가 있다.

강원지역에는 경기와 충남지역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의 공렬토기가 혼재되어 있다. 화천 원천리, 거례리, 춘천 현암리, 강릉 교동 등지에서는 직립 혹은 내만된 일반적인 공렬토기와 달리 구연 상부가 짧게 외반된 기형이 확인되는데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반)투공되거나 매우 조밀한 간격의 투공열이 관찰된다. 이 같은 형태적 특징에 착안하여 몇몇 보고서와 연구 논문에서는 웅기 송평동이나 회령 오동 출토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교동 1호 외반공렬토기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데 오동 4호 출토품과 기형상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노 형태가 위석식이라는 점도 양자의 관련성을 상정하는데 있어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병행한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오동 4호에서 공반된 외반지두돌대문토기나 여타 토기와 교동 유적의 각종 이중구연, 음각선, 공렬 등의 문양 요소는 양자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 고고 자료이다. 웅기 송평동의 공렬문은 대부분 돌대문과 결합되어 시문되며, 송평동과 오동 모두 상하 2열로 시문된 공렬토기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강원지역의 공렬토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물론 강원지역에서 발견되는 평저장경호나 원저마연호, 통형심발, 공구형석기, 동북형방추차, 동북형석도, 부리형석기 등의 유물양상을 통해 볼 때 동북한 관련 물질문화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고고 자료에서 동북한지역으로부터 공렬토기가 확산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외반공렬토기의 기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필자는 미사리유형 유적에서 빈번히 공반되는 외반구연토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기종 또한 구연 상부가 바깥쪽으로 짧게 꺾인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외반공렬토기는 문양 요소와 구연처리 기법의 융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서지역에서 이와 흡사한 기형을 보이는 외반된 이중구연이나 구순각목토기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자료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원 영서지역에서 발견되는 외반공렬토기는 경기지역에서 기원한 공렬토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반구연토기와 공렬토기 또한 서북한지역에서 그 기원을 구할 수 있는바 강원 영동지역의 외반공렬토기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중부 각지 공렬토기에 대한 다원적 이해와 결부하여 혼암리식 토기 형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이백규(1974)와 박순발(1999)은 공히 혼암리식 토기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제일성을 띤 채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장석(2001)의 지적대로 유적 간 물질문화의 상이성이 높아 하나의 유형집단이 일괄

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혼암리식 토기 반출 주거지의 탄소연대에 있어 상한 시차가 거의 없어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여 확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각 단위지역별 혼암리식 토기의 탄소연대는 순차적인 루트를 거치면서 확산되었다는 가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측정값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김장석(2001)의 견해와 같이 청천강유역 가락동유형의 남하 과정에서 집단의 일부가 기존 역삼동식 토기 사용집단 지역으로 흡수·통합되면서 혼암리식 토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선점했던 역삼동유형의 분포권이 너무 넓다. 또한 실제 혼암리식 토기가 발견되는 수많은 지역을 역삼동식 토기가 선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강원 영서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는 공렬토기가 아닌 돌대문과 미사리계 이중구연토기로 판단되며 영동지역의 경우 각종 이중구연토기와 공렬토기가 공존할 가능성은 있지만 후자가 선점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박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경기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부 혼암리유형 유적이거나 가락동식 토기는 청천강유역 가락동유형의 남하 과정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중부 각지 분포하는 대부분의 혼암리식 토기는 개별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혼암리식 토기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의 신암리와 세죽리, 진파리, 토성리와 중리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한 분포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세부 문화양상을 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청천강유역 혼암리식 토기 발생설(大貫靜夫 1996)과 백석동유형/조동리유형 혼암리식 토기의 이원적 발생설(송만영 2013)은 혼암리식 토기의 다원적 발생에 대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부지역의 혼암리식 토기는 특정 지역에서 결합하여 전역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중구연과 공렬 요소가 공존하거나 인접한 어느 지역이라도 혼암리식 토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경기 남부-아산만권역은 금강유역 가락동유형, 경기 서·북부지역은 황해도지역의 각형토기유형, 강원 영서지역은 경기지역의 역삼동유형, 강원 영동지역은 서북한 및 영서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경기 서북부지역의 이중구연토기

중부지역에는 다양한 이중구연토기가 발견되는데 이에 따라 최근 미사리계 이중구연토기와 가락동식 토기의 형식과 계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안재호 2010; 배진성 2012; 천선행 2015). 더불어 최근 연천-파주, 인천-김포를 잇는 경기 북·서부지역에서는 이와 구분되는 이중구연토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주거지는 역삼동식 주거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장방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노 개수가 적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함께 유경식 석검, 환상석부, 다두/성형석부, 유단석부, 뚜껑돌과 같은 출토 석기가 주목을 끈다. 이 같은 상황에 힘입어 몇몇 연구자에 의해 각형토기와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이진민 2008; 이기성 2010; 김권중 2010). 그런데 사실 남한 중서부지역과 대동강유역과의 관련성은 토기뿐만 아니라 석기나 지석묘 등의 문화 요소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손준호 2006; 김장석 2008; 황재훈 2009).

남한지역 각형토기에 대한 논의는 1967년, 강화 삼거리에서 단사선이 시문된 이중구연과 좁은 폭의 저부, 환상석부, 유경식 석검이 출토된 주거지가 처음 보고(김재원·윤무병 1967)되면서 시작되었다. 각형토기에 대한 관심은 가락동식 토기의 계통 연구로 직결되었는데(田村晃一 1963; 이백규 1974; 한영희 1983) 그 기원을 황해도 일대에서 구하고자 했던 견해들은 양자의 시문 기법과 기형의 상이성에 주목한 後藤 直(1971, 1973)과 윤무병(1975)의

이중구연토기와 공반되는 석기 또한 각형토기유형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경기 북서부지역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경부 양측에 홈이 파여진 유구유경식석검, 다두/성형석부, 환상석부, 유단석부, 뚜껑돌, 어형석도 등의 개별 석기의 형태와 조합은 대동강유역의 그것과 매우 높은 상사성을 보인다.

주지하듯이 역삼동식 주거지는 대개 (세)장방형의 형태를 띠며 내부에는 중심축을 따라 복수의 토광식(또는 무시설식) 노와 함께 내측 2열 혹은 중앙 1열의 주공, 저장구덩이 등이 시설된다. 단축은 대체로 2~4m 내외로 가락동과 미사리식에 비해 매우 큰 장단비를 보인다. 이와 달리 경기북서부 각형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폭 4m 이상의 장방형이 많으며 단벽 가까이에는 1~3개⁹⁾의 토광식 노¹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각형토기 출토 주거지라도 평면 형태와 내부 구조에 있어 약간의 지역차가 관찰된다. 인천-김포 등지에서는 장단비 1:2 이하의 장방형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 파주-연천지역에서 발견되는 주거지는 장축이 길어 장단비가 비교적 큰 편이다. 주공은 양 지역 모두 기본적으로 벽을 따라 시설되는 경우가 많다. 세부적으로 임진강유역에서는 내측 2주열식이 확인되는데 반해 인천-김포지역에서는 정연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다(표 2).

한편 경기 북서부지역 이중구연토기 출토 유적과 대동강유역 각형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은 지식묘의 형식과 분포 양상을 통해서도 간접적이거나 추정할 수 있다. 임진강유역과 인천-김포의 한강 하구에 분포하는 탁자식 지식묘의 경우 상석과 지식 모두 치석 조정된 판석을 이용하며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평면 ‘교’자형의 형태를 보인다. 이 같은 세부 구조와 형식은 대동강유역 지식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황재훈 2009, 2015). 이와 달리 경기 여타지역의 탁자식 경우 대개 거친 괴석을 축조 재료로 이용하며 평면 ‘ㄱ’자형의 매장주체부 등 세부적인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¹¹⁾ 물론 주거지와 지식묘의 동시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기 북서부지역 탁자식 지식묘의 분포 범위와 경기지역 각형토기 및 주거지의 분포범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은 양자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기 북·서부지역 이중구연토기의 1) 구연 제작 형태 2) 단사선의 시문 방식 3) 기형을 비롯하여 표주박형의 호형토기, 주거 평면과 내부 구조, 석기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물질문화는 대동강유역의 각형토기유형과 직접적으로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락동, 미사리, 역삼동유형의 토기 기종의 하나인 대부토기가 전무하다는 것도 차별적 양상이며 이 또한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IV. 중부지역 무문토기 사회의 전개

필자는 전고를 통해 무문토기시대 4,000여 건의 탄소연대를 집대성하여 남한 각 지역별, 토기 문양별 연대분포

9) 연천 강내리 6호 주거지에서는 4개의 토광식 노가 설치되어 있어 이채롭다. 주거지 장축(13.6m)을 감안한다면 거주 인원과 관련된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동쪽에 위치한 노는 상호 인접해 있어 동시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 강화 장정리와 김포 학운리 유적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석식 노가 설치된 주거지가 조사되어 주목을 끄는데 이 같은 양상은 대동강 상류 남양리 유적과 비견해 볼 수 있겠다. 각형토기 중심분포권과 달리 위석식 노와 초석이 설치된 주거지가 다수 조사되었는데 청천강유역과의 상호교류에 의해 문화 요소 일부가 수용되었거나 여러 요인에 의한 문화동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11) 반면 한강 분류를 비롯한 경기 중남부, 강원 영서지역에서 발견되는 탁자식 대부분은 임진강~한강 하구의 지식묘와 외형적으로 흡사해 보이나 세부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기술적 속성을 달리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양상 또한 문화유형 간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추정컨대 모사나 모방과 같은 요인에 의한 변이로 생각된다.



를 비교·분석하였다(황재훈 2014b). 전기의 상한¹²⁾이 다소 소급될 여지가 있고, 후기의 하한 또한 지역적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탄소연대는 3200~2400 BP 범위 내 포함된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2700 BP를 기점으로 한 양봉분포가 관찰되는데, 이 시점은 송국리유형의 등장시점과도 결부되어 있다. 이에 따라 3200~2700 BP, 2700~2400 BP를 각각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는 세부적으로 2950 BP와 2830 BP를 기점으로 급증-정점-급감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 같은 급격한 빈도 변화는 특정 문화변동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선에서 시간 단위를 세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황재훈·양혜민 2015).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로 탄소연대가 검출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기 전반·중반·후반, 후기의 시간 범위를 설정하여 문화유형의 공간적 분포, 취락 입지, 주거 배치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상과 함께 주거 내부 시설, 토기 문양, 석기 형식 등의 미시적인 변이를 종합하여 중부지역 전기 사회의 전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1. 전기 전반

기원전 14~13C(3200 BP)를 전후한 시점, 중부지역 곳곳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무문토기시대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적의 수가 매우 적고 분포 또한 매우 산발적인 탓에 문화 내용이 그리 명확치 않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던 유적은 기원전 13C 중반(3100 BP)을 지나 점차적으로 증가해가며 12C 즈음에 이르러 취락의 수와 밀도가 급증함에 따라 각 지역별 문화 양상이 명확해진다.

이른 시기의 취락은 일반적으로 구릉 정상에 평탄부나 능선 상에 입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5기 미만의 주거지가 일정 간격을 두고 열 지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서부지역에는 각형토기, 중부와 남부지역에서는 공렬토기 출토 주거지가 확인된다. 예외적으로 동양동과 정문리에서는 돌대문토기 주거지가 발견된바 있다.

인천 운서동Ⅲ, 김포 양촌 유적에서는 각형토기유형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며 강화 삼거리를 비롯하여 김포 양곡 1-5호와 학운리 3-1-1호 또한 이른 시기 각형토기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천 경서동과 중산동의 몇몇 주거지 또한 유구·유물 양상을 통해 볼 때 각형토기유형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경기 중부와 남부지역의 시흥 목감동과 능곡동, 수원 울전동과 이목동, 화성 천천리, 울암리, 평택 현화리 유적에서는 이른 시기의 공렬토기 출토 주거지가 분포하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중부지역의 미사리유형 취락은 정문리와 동양동 유적과 같은 예외적 사례가 있지만 대개 강안 충적대지에서 발견되며 주거지는 강의 흐름과 직교한 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된다. 경기 동부~강원 영서지역의 하남 미사리, 구리 교문동, 가평 대성리, 연하리, 화천 거례리1-3과 1-4지점, 춘천 중도, 현암리, 천전리121-6, 홍천 철정리Ⅱ, 외삼포리, 원주 동화리 유적에서는 각종 돌대문과 이중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는 미사리식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 한강 중류~북한강유역에 집중되어 있다.

강원 영동지역은 12C 후반~11C 초(3000 BP 전후)에 이르러서야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3100

12) 3200 BP를 상회하는 모든 연대치를 이상측정치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동일 유구/유적 내 복수 연대치나 여타 측정치와 동떨어진 탄소연대의 경우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사리 KC-11호의 3360±40, 철정리Ⅲ-C1호 3310±60, 철정리Ⅱ-A1호 3840±50, 금산리B4호 3270±110, 가현동 4호 3300±50, 반곡동 3호의 3610±60의 연대치는 이러한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간접적인 근거지만 요동지역 쌍타자와 대취자 3기, 마성자 고기의 연대치가 참고가 된다.

BP를 상회하는 몇몇 측정치(고성 제진리 3200, 강릉 방내리(강문원) 3100, 강릉 교동 3390, 3230, 3100, 3040 BP)가 보고되었지만 여타 유적·유물의 연대치를 감안하면, 표본규모에 따른 이상측정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기 전반의 늦은 시점에 형성된 양양 임호정리, 강릉 교동, 고성 사천리 유적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발견되는데 평면 장방형으로 대개 구릉 정상에 평탄부와 능선상에 열을 지어 배치하며, 내부에는 토광식이나 위석식 노, 벽구시설이 확인된다. 각종 이중구연이나 혼암리식 토기, 거치문 등의 음각선문으로 보아 서북한지역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공반된 소수의 공렬토기나 구순각목토기도 비슷한 시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토기 공반상 및 탄소연대를 종합하여 볼 때, 전기 전반 중부 각지에는 서로 다른 토기 문양을 갖는 물질문화가 지역을 달리하여 공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서부지역의 각형토기, 중·남부의 (구순각목)공렬토기, 강원 영서의 각목돌대문, (미사리계)이중구연토기, 강원 영동의 (가락동계)이중구연토기가 그것인데, 이른 시기 토기 문양의 분포는 매우 편중된 양상을 보인다. 전반의 늦은 시기로 갈수록 문양 요소가 공반되거나 융합되는 등의 양식적 변이 및 공간적 분포상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화접변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렬토기 제작 집단은 환경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기존 신석기 집단뿐만 아니라 각형토기유형,가락동유형과의 교류에 능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 속에서 기술, 도구의 교환이나 모사·모방, 혼인과 같은 소규모 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출토 토기가 부재하여 문화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현재 설정된 문화유형의 범주에 소속시키기 어려운 유구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유구의 탄소연대가 가장 이른 연대값인 3000, 3100 BP를 상회한다는 데 있다. 인천 경서동(3110, 3130 BP), 인천 원당동Ⅱ(3070 BP), 가평 달전리(3110, 3140 BP), 안성 반제리(3100 BP), 양평 삼성리(3040 BP), 인천 운서동Ⅱ 3-4호(3140 BP), 철원 와수리(3040, 3120, 3180 BP) 등이 그것이다. 양평 삼성리 1호에서는 동체 외면에 기하학무늬가 베풀어진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신암리 2기층과 구룡강 12호 주거지, 초도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인천 운서동Ⅱ 3-4호에서는 탄소연대상 중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어 역삼동식 토기의 형성과정에 있어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수원 이목동, 여주 혼암리 유적에서 발견되는 단종선문, 거치문, 단사문, 사격자문, X선문, 파상문과 같은 단독 음각선문은 이른 시기 주를 이루는 문양 외에도 다양한 문양이 병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000-3100 BP를 상회하는 이른 시기의 복잡다양한 문화 양상과 세부 물질문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반기 북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인 확산과 전파는 일회적이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물질문화에 한정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사리와 가락동유형과 같이 정형성을 갖춘 문화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각종 음각선문, 채색토기와 같이 수량과 밀도가 낮아 가시성이 떨어지는 물질문화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 전반 중부 각 지역의 문화 내용과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는 원거주지의 다양한 문화 요소, 이주 단위의 규모, 점유시점의 세부적 편차, 상호작용의 강도와 같은 문화 양상의 복합을 반영하고 있다.

2. 전기 중반

전반 이래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던 중부 각지의 취락은 기원전 11C 중반(2950 BP)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역삼동유형의 정립과 함께 관련 유적의 수와 밀도가 급증하면서 중부 각지는 점차적으로 명확한 사회적 경계를 형성해 나간다.



경기지역에서 발견되는 취락 대부분은 전기 중반 들어서도 산지나 구릉에 입지하는데 취락 규모가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정상부에서 능선과 사면 방향으로 주거 구역이 확장되어 가는 양상이 관찰된다. 특히 역삼동유형 취락은 구릉 사면부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북서부지역에서 발견되는 각형토기유형 취락은 충적대지에 입지한다.

서부지역에서는 이전 시기에 이어 각형토기유형이 존속된다. 김포 양촌, 운양동, 마송, 인천 검단 등지에서 유적이 확인되는데 유구 수량과 밀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김포 양촌과 인천 원당동, 구월동, 부천 고강동 등지에서는 새로이 역삼동유형 유적이 형성되어 간다. 북서부지역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각형토기유형 취락인 연천 삼거리와 강내리, 파주 당동리 유적에서는 내측 2주혈식의 토광식 노가 설치된 장방형 주거지, 유경식석검, 환상석부, 다두석부, 뚜껑돌 등의 유구·유물 양상을 보인다.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파주 운정, 당하리, 교하리, 식현리 유적 또한 관련 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부지역에서는 울전동, 천천리와 같이 전반 이래 역삼동유형 취락이 존속하며 계수동, 관양동, 금곡동, 고금산 등지에서는 새로이 중·소형 취락이 형성된다. 극소수의 유적만이 발견되었던 동부와 남부지역은 역삼동유형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유적의 수와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미사리 유적¹³⁾은 역삼동유형으로 변모하며 호평동, 동판교, 역동, 고덕동, 덕풍동, 망월동, 대덕골, 토진리, 칠괴동, 남양동Ⅱ, 쌍송리, 양교리, 소사동 등지에서는 크고 작은 취락들이 새로이 형성되어 간다.

전기 중반 한강 중류~북한강, 남한강유역의 취락 대부분 역시 강안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부 취락은 구릉지대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미사리유형의 중심 분포권이었던 한강 중류~북한강유역은 중반 들어 주목할 만한 공간적 분포의 변화가 관찰된다. 가평 연하리를 비롯한 한강 중류역의 미사리유형 취락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한 채 역삼동유형 취락으로 변모하거나 소멸되어 간다. 이와 달리 북한강유역에서는 거례리1-3, 천전리121-6 유적과 같이 전반 이래 존속한 취락과 함께 거례리1-4, 금산리, 신매 1제방, 천전리·울문리, 하화계리 유적과 같이 새로이 형성된 중소형 취락이 확인된다. 한편 용암리, 거례리 1-4, 천전리, 거두리, 외삼포리 등지에서는 경기지역으로부터 확산된 역삼동유형 물질문화가 확인된다. 취락의 수와 밀도가 낮았던 남한강유역의 천동리, 문막리, 가현동, 반곡동, 태장동, 법주리, 와석리, 아우라지 등지에서는 새로이 중소형 취락이 형성된다. 남한강유역은 북한강유역과는 달리 역삼동유형의 직접적인 확산의 증거는 찾을 수 없는데 이 일대 발견되는 공렬토기나 구순각목토기, 혼암리식 토기는 북한강유역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취락 수량 및 유구의 밀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나 중부 여타 지역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전 시기 형성된 몇몇 취락이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이 고성 대대리, 속초 조양동, 강릉 방내리(강문원), 동덕리, 입암동, 동해 효가동 등지에서 중·소형 취락이 형성된다. 전 시기에 비해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혼암리식 토기의 비율이 급증한다. 한편 효가동 출토 외반구연토기와 방내리 1호 외반공열거치문토기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13) 미사리 유적에서의 역삼동유형의 본격적인 점유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평 연하리와 대성리에서 확인된 이 일대 미사리 유형의 하한과 북한강유역으로의 역삼동유형 확산의 상한을 함께 고려해보면, 전기 중반 즈음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14) 송만영(2013)은 위석식 노가 설치된 장방형주거지, 돌대문, 이중구연토기, 통형대부토기와 같은 강원 영서지역 유구·유물상을 이른바 조동리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계통적으로 미사리유형에 후속하며 공반되는 공렬토기는 아마도 북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허의행(2014)은 기본적으로 송만영의 견해에 동의하며 가락동유형을 비롯한 여타 물질문화와의 문화접촉을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에 반에 이형원(2014)은 남한강유역의 양상을 중부지역 역삼동유형과 가락동유형과의 문화접촉으로 이해한다. 필자의 견해는 주거 구조에서 미사리유형을 계승하고 주변의 공렬토기문화를 수용한 남한강유역의 지역 문화로 본 김권중(2016)의 결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면 방내리 유적(강릉대) 또한 이 시기 취락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 늦은 시점 무렵 시작된 중부 각 지역 간 상호작용은 이 시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양상을 보인다. 주거 구조 및 석기의 공유 및 적색마연토기 등에 있어 문화접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양식적 통일성이 높았던 이른 시기와 달리 토기 문양의 공유와 융합, 양식적 변이¹⁵⁾가 활발해지면서 토기 문양의 지역적 편중성이 완화되어 간다. 그 결과 토기 문양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 순의 점진적인 분포상을 보이게 된다. 가락동식 토기나 혼암리식 토기가 공반되는 경기 남부-아산만권역 역삼동유형 유적, 경기 서부와 북서부지역 각형토기유형 유적에서 공반되는 (구순각목)공렬토기, 남한강유역의 공렬토기와 혼암리식 토기는 이 같은 문화접변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기 중반 중부 각지에서 관찰되는 문화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역삼동유형의 확산에 있다. 점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 동부와 남부 전역, 한강 중류~북한강유역 등지에 걸쳐 수많은 취락이 새로이 형성되면서 역삼동유형의 분포권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역화된다. 역삼동유형의 극적인 확산은 중부지역 물질문화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지역적 경계의 변화는 각 문화유형의 분포권과 맞물려 연동한다.

한강 하류역으로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 서·북부지역은 각형토기유형 간 지역적 경계이자 문화적 접미지대로 변모한다.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북서부지역 각형토기유형 유적이 경기 서부지역에서 기원하였는지 아니면 황해도 지역으로부터의 남하에 의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점차 역삼동유형 유적으로 변화하는 김포 양촌 유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역삼동유형의 확산이 북서부지역 각형토기유형 유적 형성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 및 한강 중류~북한강유역 미사리유형 유적은 점차적으로 역삼동유형 취락으로 변모해간다. 하남 미사리를 시작으로 가평 대성리, 화천 거례리(1-3, 1-4), 춘천 현암리, 천전리121-16, 중도, 홍천 철정리, 외삼포리와 같은 미사리유형 유적은 역삼동유형으로 연차적으로 전환된다. 이들 미사리유형의 일부는 역삼동유형으로 편입되기도 했지만 전기 중반 이후 증가하는 남한강유역 미사리유형 관련 유적은 역삼동유형의 확산이 남한강유역으로의 이동을 야기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한편 경기 남부 및 아산만권역으로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한 가락동유형과의 지역적 경계가 정형화된다.

전기 전반 점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기 동부와 남부지역은 중반 들어 본격적으로 점유되기 시작하며 취락의 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역삼동유형의 급격한 확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경기 서부의 양촌, 원당동, 구월동, 고강동, 경기 중부 이남의 금곡동, 역동, 동판교, 쌍송리, 양교리, 소사동, 북한강유역의 거례리 1-3·1-4, 용암리, 원천리, 천전리, 현암리, 거두리, 금산리, 천전리·울문리, 철정리Ⅱ 등지의 유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전기 중반 들어 부상하는 인구 결집지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중반 이후 새로이 점유된 중·대형의 역삼동유형 취락은 대부분 구릉 정상~사면부에 입지하는데 주거지는 등고선을 따라 환상으로 배치되거나 사면부에 3~4열로 밀집된 분포 정형을 보인다. 한강 중류~북한강유역의 강안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역삼동유형 취락 또한 강 흐름을 따라 일정한 열을 지어 밀집 배치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 같은 양상은 이전 시기 점유되지 않았던 지역으로의 인구 결집이 일정한 기획 아래 진행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와 함께 구릉 정상부나 사면, 능선상에 입지한 소형의 취락도 적잖이 발견되는데 이는 취락의 해체나 분산¹⁶⁾

15) 이중구연 내부,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된 일반적인 혼암리식 토기와 달리 연천 삼거리와 강내리, 군포 대야미동, 아산 송촌리, 하남 덕포골 출토품은 이중구연 아래, 밖에서 안으로 관통한 공렬문이 시문되어 있어 다소 이채롭다.

16) 새로운 개척지에서는 산림 벌채와 토지 개간, 저수지 축조와 같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노동력의 수요에 의해 인구 결집이 요구되었을 것인데, 이는 또 다시 식량이나 땃감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지력 감쇄와 토양 유실과 같은 환경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인구의 결집, 취락의 해체와 분산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과정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은 전기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간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중부 각 지역의 유적 상황을 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역삼동유형 취락으로 변모된 경우가 많다. 이는 인구 이동이 타 문화유형이 선점한 취락이나 영역으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데 문화유형 간 정보 및 문화요소의 교류와 같은 상호작용은 이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전기 후반

중부 각지의 문화적 경계는 기원전 10C 중반(2830 BP)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변화되어 간다. 후반 또한 역삼동유형의 재확산에 의한 급격한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시기 형성된 지역적 경계에도 큰 변화가 수반된다.

각형토기유형의 주 분포권이었던 경기 서·북부지역은 이 시기 들어 역삼동유형 유적 일색으로 변모되며 그 범위는 임진강 상류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반 이래 인구 결집지로 부상하였던 파주 당동리, 김포 양촌, 인천 원당동 유적은 대형 취락의 면모를 유지한다. 중·동부지역은 공간 분포상에 있어 별다른 변화 없이 역삼동유형 취락의 증폭과 형성이 확인된다. 능곡동, 관양동, 금곡동, 망월동, 역동, 동판교 유적과 같이 전 시기의 중소규모 취락이 유지되는 한편, 이동, 여수동, 영덕동, 마북리, 망월동 구산 등지에서는 새로이 중소형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남부지역과 충남지역에서는 전 시기 취락들이 존속·유지되는 가운데 점유가 활발하지 않았던 단위지역으로의 재결집 양상이 관찰된다. 내삼미동, 남양동, 양교리 산41-1 등지에서는 새로이 중대형 취락이 형성되며 인구 결집지로 부상하였던 소사동, 양교리, 쌍송리 일대는 취락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간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취락뿐만 아니라 소형 취락도 상당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취락의 결집과 분산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 영서지역 미사리유형 유적은 점차적으로 쇠퇴해 간다. 북한강 깊숙이까지 확산된 역삼동유형 취락은 기존 미사리유형 취락을 재편하게 된다. 북한강유역의 충적대지에는 대형의 역삼동유형 취락들이 존속되는데 특히 가평 달전리, 화천 용암리, 거례리, 춘천 현암리, 천전리·울문리, 홍천 철정리Ⅱ 일대는 후반 들어서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간다. 또한 전 시기 이래 존속되거나 대형 취락의 분산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가평 대성리, 춘천 금산리, 천전리121-16, 거두리, 거두리779-1, 신매 1제방, 송암동, 홍천 외삼포리와 같은 중형·소형 취락도 확인된다. 남한강유역은 대형 취락이나 새로이 형성되는 유적 없이 이전 시기 형성된 주천리, 와석리, 문막리, 가현동, 반곡동, 범주리, 마지리, 아우라지와 같은 중소형 취락이 유지되는 양상이다. 유구·유물 내용에 있어 지역적 차별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한편 석기나 일부 토기에서는 동북한지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강원 영동지역의 방내리(강문원), 대대리 유적과 같이 중반 이래 존속된 취락과 함께 고성 화포리, 동해 지흥동 등 소형 취락이 확인되는데 유적의 수량과 밀도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구순각목공렬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일색인데 이 같은 전기 후반의 토기 양상은 양양 포월리와 삼척 호산리 유적과 같은 후기 유적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기 후반 또한 문화유형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문화집변 양상이 살펴진다. 경기 남부-아산만지역과 강원 영서의 북한강과 남한강유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에 의해 토기 문양 요소가 융합되거나 변형되며, 서로 다른 문양의 토기나 석기 등이 공유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한편 가락동유형 유적인 대전 노은동 3호, 신대동 4호, 방동뜰 13호, 연기 송원리 32호 주거지 출토 공렬토기 또한 역삼동유형 간 상호작용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지역적 경계의 변화상은 경기 서북부와 강원지역에서 잘 간취된다. 경기 서·북서부 및 임진강 상류역의 각형토기유형 유적은 역삼동유형 유적으로 변화되며, 전기 중반 이래 인구 결집지로 부상하였던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북한강유역의 역삼동유형 유적은 이 시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취락 규모가 확대되어간다. 이에 반해 강원 영서의 미사리유형 유적은 분포 범위가 급격하게 축소되며 유적의 수와 밀도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영동지역의 취락 양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4. 후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원전 8C 전반(2700 BP)에 들어서면 송국리유형이 등장하며 광역적 분포권을 형성하게 된다. 송국리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단위지역에는 지역문화유형이 형성되는데 경기지역의 역삼동Ⅱ유형, 북한강유역의 천전리유형, 동남해안의 검단리유형, 강원 영동지역의 포월리유형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화유형의 하한은 지역적인 편차가 다소 존재하지만 점토대토기의 등장시점을 고려하면, 기원전 5C 전반(2400 BP) 즈음으로 사료된다. 후기의 물질문화 양상은 본고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있고 다른 발표에서 자세히 논의될 예정인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후기 중부 각지의 전반적인 문화내용은 전기 후반 이래 본격화되는 지역성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공렬토기의 변화상을 비롯하여 경기 지역문화유형에 대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김한식(2006)에 의해 설정된 이른바 역삼동Ⅱ유형은 주거지의 소형화, 저부투공토기, 외반구연의 호형토기,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단인석부류의 증가와 같은 문화내용에 착안하여 설정된 경기지역 후기 문화양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최근 경기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명확한 후기의 물질문화상이 관찰되는바 이에 대한 약간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중앙 또는 벽가에 위치한 1~4개의 불규칙한 주공과 한쪽 벽면에 치우친 0~3개의(대부분 1개) 토광식 노가 설치된 소형주거지, 공렬토기와 무문양토기, 경부의 경계가 희미한 호형토기, 성형 시 고판을 이용하여 정면한 타날문토기, 저부 중앙에 원형구멍이 뚫린 토기, 일단경식석촉, 일체형석촉, 유구석부 등의 유구·유물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이 시기의 공렬토기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상이 관찰된다. 전기에 비해 투공 개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투공 간격은 매우 넓어진다. 또한 구멍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세부적으로 투공 간격은 다소 불규칙하며 투공의 위치는 정연하지 않으며 구연단으로 상향되어 간다. 후기 공렬토기의 경향성은 전기 전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투공 간거리, 구순-투공 간 거리의 변화 양상을 통해 이미 감지된바 있는데(황재훈 2014) 특히 후기에 속하는 파주 당동리, 고양 도내동 도당, 광명 가학동 산100-3번지, 화성 반송리, 화천 용암리, 원주 태장동 유적 출토품에서는 공렬문의 탈락화 과정을 잘 살필 수 있다.

한편 ‘역삼동Ⅰ·Ⅱ유형’이라는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역삼동유형을Ⅰ과Ⅱ로 양분하기에는 양자의 편차가 너무 크며, 전기의 복잡다양한 문화내용을 단순히 역삼동Ⅰ유형으로 압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서울 역삼동 유적에서Ⅱ유형의 유물복합체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새로이 지역문화유형을 명명하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지 판단키 어렵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명칭에는 재고가 필요할 듯하다. 이에 경기지역 후기의 유구유물 양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인천 중산동 유적의 명을 취한 ‘중산동유형’이 조금 더 적



절한 명칭이라 생각된다.

이 같은 물질문화는 대체로 2700~2400 BP의 시간 범위에 속하는바 송국리유형을 비롯한 후기 제 문화유형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파주 당동리, 김포 양촌, 인천 원당동Ⅱ, 인천 구월동, 광주 역동과 같이 전기 이래 존속되면서 중산동유형으로 점차 변모해가는 취락과 함께 고양 도내동 도당, 도내동·원흥동, 인천 중산동 유적, 오산 청학동과 같이 후기 들어 새로이 형성된 취락이 확인된다.

V. 맺음말

서울 역삼동 유적이 발굴되었던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무문토기에 대한 이해는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다시 반세기 넘게 축적된 수많은 고고 자료에 힘입어 무문토기시대 연구는 괄목할만한 진척을 이루어왔다. 편년을 비롯한 무문토기문화의 전개 양상에 대한 설명 안은 새로운 가설들이 거듭 제기되면서 뒤집히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남한지역 공렬토기를 둘러싼 논쟁이 환기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무문토기시대 연구 시각과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편년은 한 시대의 문화변화 양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초석이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토기의 문양, 주거 구조, 석기 형태를 조합하여 형식과 문화유형을 설정하고, 표지 유물을 통해 편년 틀을 구축하지만 실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론은 매우 미약하며 근거 자료 또한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고고학적 정설은 늘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자료와 방법론에 기초한 가설이 기존의 정설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안을 찾아낸다면 새로운 가설은 정설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공렬토기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양비론적 시각에 의한 논의의 담보가 아닌 더 좋은 정설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의의 지속적 확산이라고 본다. 사실 본고는 중부지역 공렬토기문화의 설명 틀에 대한 초보적인 점검의 일환일 뿐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아무쪼록 본 발표가 공렬토기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의 진전과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인욱, 2007,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62.
- , 2011,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33, 동북아역사재단.
- 김권중,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 『중부지역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 I』, 중부고고학회.
- , 2016, 「조동리유형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15-1.
- 김원용, 1986, 『한국고고학개설』, 제 3판, 일지사.
- 김장석, 2001, 「흔암리유형 재고」, 『영남고고학』28.
- ,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69.
-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 지석묘 연구』, 국립박물관.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5-1
- 김현식, 2008a, 「호서지방 전기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영남고고학보』44.
- , 2008b,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문화사적 의미」, 『고고광장』2.
- 문수균, 2010, 「한반도 서북지역 각형토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 철기문화」, 『한강유역사』, 서경문화사.
- , 1999, 「흔암리유형 형성과정 재검토」, 『호서고고학』창간호.
- ,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진성, 2003, 「무문토기의 성립과 계통」, 『영남고고학』32, 영남고고학회.
- ,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0, 「무문토기의 계통과 전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 2013, 「가락동식 토기의 초현과 계통」, 『고고광장』12.
- ,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영남고고학』72.
-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만영, 2001, 「남한지방 농경문화형성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 2010a,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편년의 재검토」, 『중앙고고연구』7.
- , 2010b, 『한반도 중부지역 취락의 발전과 정치체의 성장』,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3, 「흔암리식 토기 발생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79.
- 안재호, 1991, 「남한 전기무문토기 편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43.
- , 2010,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이기성, 2010, 「영종도의 청동기문화」, 『영종도의 고고학』, 인천학술대회.
- 이백규, 1974, 「경기도 출토 무문토기·마제석기」, 『고고학』3.



- 이진민, 2008, 「서울·경기지역 전기 무문토기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전통과 변화: 서울경기 무문토기문화의 흐름』, 서울경기고고학회.
-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1.
- 이형원, 2002, 「한국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청동기시대 청천강 및 대동강유역의 취락과 문화접변」, 『고고학』13-2.
- 임세권, 1986, 「평창강유역의 무문토기문화」, 『영남고고학』1.
- 庄田愼矢, 2007, 『남한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유전, 1994, 「청동기시대의 공렬토기」,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유물을 통하여 본 사회상-』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제 3집,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천선행, 2007, 「무문토기시대의 초기설정과 시간적 범위」, 『한국청동기학보』1.
 -----, 2015, 「청동기시대 초기설정 재고」, 『호남고고학보』51.
- 최종모, 2010, 「강원도 청동기문화 전개에 있어서 초기문제의 제기」, 『고고학』9.
- 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 「각형토기문화유형의 연구」, 『야외고고학』창간호.
- 한영희, 2005, 「각형토기」, 『한국고고학보』14·15.
- 허의행, 2005,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중심과 경계」, 『호서고고학』31.
- 황재훈, 2009, 「경기지역 무문토기시대 묘제의 형식과 지역성 검토」, 『고고학』8-1.
 -----, 2014a,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b, 「중서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시간성 재고」, 『한국고고학보』92.
 -----, 2015, 「서북한지역 지식묘 연구 검토」, 『고고학』14-3
- 황재훈·양혜민, 2015, 「14C연대 분석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시론」, 『호남고고학』50.
- 大貫靜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をめぐって」, 『東北アツアの考古學』2.
-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の文様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
- 田村晁一, 1963, 「朝鮮半島の角形土器とその石器」, 『考古學研究』38, 考古學研究.
- Longacre, W. A. (ed.). 1991. *Ceramic Ethnoarchaeolog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 Rice, P. M., 1987, *Pottery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essner, P.,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8:253-276.
- Wobst, H. M., 1977. Stylistic Behavio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C.E.Cleland (ed.) *Papers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Anthropological Papers 61).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pp 317-342.